

사랑방 인도자 교재

사도행전 4 장 (1)

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이후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. 하지만, 그들은 곧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.

1.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 (2 절/ 참고 4 절)

- “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”고 전했기 때문입니다.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, 예수 믿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.
-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 제사장 출신의 율법학자들입니다.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주요 멤버로 율법의 해석과 재판을 주관했는데, 모세 오경에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.
- 바리새인은 경건주의 운동의 분파로 선지서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. 하지만, 사두개인들과 함께 교권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.
-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?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?

2.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심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? (7 절)

- “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?”
- 부활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 왔다는 2 절의 진술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의아한 심문입니다.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는 이미 공개된 진술입니다 (참. 3:6, 16, 20, 26).
- 어떤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로 행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제자들을 심문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
-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봅시다. 그는 구약성경의

언약과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정하여 보내시고, 죽음 가운데 살리시며,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.

-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진짜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

3.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? (참고/ 6 절)

* 역사/ 대제사장 안나스 (AD. 6-15), 가야바 (AD 15-32)

- 누가는 6 절에 “대제사장 안나스”라고 기록합니다. 그리고 이 부류에 들어가는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
- 그런데 역사적으로 안나스는 주후 6-15 년에 대제사장 직무를 역임한 인물입니다. 예수님의 부활 이후인 당시에는 주후 15-32 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.
-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? 주후 15 년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야했던 그는, 율법이 장자에게 계승하도록 한 대제사장 직을 사위인 가야바에게 세습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다섯 아들을 모두 대제사장에 임명하여 권력과 특혜를 누린 인물입니다.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“이런 일은 다른 어떤 대제사장에게 찾아 볼 수 없다”고 기록합니다.
- 안나스와 대제사장들이 질문한 내용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자기 이름과 권세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. 탐욕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.

4.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? (8-12 절)

- 베드로는 오직 “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”을 증거했습니다.
- 베드로는 대제사장들 처럼 자기 이름과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명성을 내지도 않았습니다.
- 오늘날 기독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.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큰 건물을 짓고, 부를 축적 및 사용하는 것입니다. 누구의 이름이 나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
-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
 -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(마 6:3),

-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(마 5:16).

5. 당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 평생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으십니까?

- 다큐영화 “교회오빠” 광고편의 시청을 권유합니다. (1:31)
 -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Wb9xXhUBx0>
- 좀더 긴 영상을 개인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(37:18)
 - <https://vimeo.com/264120771>

6. 베드로가 생명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였습니까? (8 절/ 참조 13, 14 절)

- 가장 큰 비결은 “성령충만”입니다.
 - 그가 홀로 예수님의 심문 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에 스스로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.
 -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계시자 그는 불과 수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.
- 또 하나의 비결은 병 나은 사람이 “함께” 있었기 때문입니다.
 - 사십 평생을 걷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낫게 된 이 사람은 안녕과 번영을 쫓기 보다, 고통 당하는 사도들 편에 서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.
-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(19 절)

7.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? (13 절)

- “학문없는 범인(凡人)으로”
- “학문없는”(ἀγράμματος)이란 수사학적 기술이나 논리적 진술을 훈련받지 못한 문맹자를 의미합니다.
- 범인이란(ἰδιώτης) 단지 ‘보통사람’ 이라기 보다 철학적 사고를 못하는 ‘무식한’ 사람 혹은 바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
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찌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(고전 1:23). “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” 당신에게 십자가 복음은 ‘꺼림’입니까? ‘미련’입니까? 성도에게 십자가는 “자랑”입니다!

8. 산헤드린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준 이유는 무엇입니까? (14, 21 절)

-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으며,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.
- 이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며,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그러므로 더이상 사도들을 잡아 두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
- 그런데 관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다? (21 절) 사도들을 위협하며 그 이름으로 다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
- 하지만 사도들은 스스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.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.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위협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.

9. 당신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?

-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.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.
- 성령충만은 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! (엡 5:18) 세상을 향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.
- 당신의 삶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? 자기 자신의 이름과 권력을 위한 욕망과 탐욕을 위한 삶입니까?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?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 하십시오!